

[46~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수능)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서 지문 분석법

첫 단락 - 제재가 무엇인가? (-> 서론인가?)

(제재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서론인가?) 제재가 제시되었으니 서론이라고 가정합니다.(이번 지문에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단락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일반적 진술) 언어와 세계는 대응한다. (명제와 사태도 대응한다.)

(같은 맥락, 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 자 잘 보세요. 이 글은 언어와 세계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catch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매번 다시 읽는 순간! 체감난이도는 급상승합니다.

(같은 맥락, 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 우리가 평소 수 십, 수 백 번 쓰는 도구를 적용합니다. 갑자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세계  
명제들 사태들  
논리적 그림 논리적가능성

3문단 내용까지 조금 나열해보면, 정답률 50%대 48번이 ‘개념’보다 쉬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 간의 관계를 놓치면, 이 지문은 절대 파악이 안 됩니다.

본문 3단락 - 각 문단 일반적 진술(=소주제)은 무엇인가?

3문단이 무슨 내용이죠? 2문단과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손해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2문단과의 관계) 2문단에서 나온, ‘사태’, ‘사실’에 대해 상술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고 실제로 일어나면 참,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명제는 논리적 그림입니다. (정답률 50%대 48번은 정말 짬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명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전부다 해줍니다. ‘의미 없는 명제’는 뒤집어서 센스있게 로 표시해줍니다.

(같은 맥락, 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 -> 48, 49번 문제 ‘결정타’)

이 지문에서 이 도구를 쓰지 않으면 킬러 문제 48, 49번을 ‘정확히’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48번의 c은 뭐야 틀렸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몇 문단, 몇 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단 - 주제가 있는가?

(주제가 있는가? - 없다 - 본문이다.) 일반화는 안 되었고, 첫 줄이 일반적 진술입니다. (3문단 관계 부분) 3문단에 나왔던, 의미 없는 명제를 끌어와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등과 관련된 논의는 의미 없는 명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번 ㉠번 선택지에서 4문단의 일반적 진술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음)

(같은 맥락, 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

의미 없는 말이 왜 의미 없는 명제인가요?... 이런 사람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안되면, 마지막 <보기>문제도 어렵습니다.

의미 없는 명제 = 의미 없는 말 = 말할 수 없는 것

# 2PRINCIPLES

46.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같은 맥락/의미를 같은 기호로 표시하기) 도구를 썼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몇 문단 몇 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해를 할 때, 같은 맥락/같은 의미에 있는 개념들을 쉽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번 선택지에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세모가 쳐져있을 것이니, ~~를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라고 지문에 표시된 것을 찾아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참인 명제다. 바로 틀렸죠.

④번 [명시적인 근거1] 3문단 6행 '의미있는 명제는 (중략)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연결논리]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참인 명제는 아니다.

<매력적인 오답 해설>  
 ('같은 의미/같은 맥락'은 '같은 기호'로 표시) 사태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니, 사실과 사태가 구별된다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2행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3~5행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2행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논고'는~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큰 영향을 주었다', 2문단 1행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⑤번 5문단의 일반적 진술입니다. 복잡하게 찾으려 안 됩니다.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3행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2PRINCIPLES

47. 위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정답 선택지 해설>

(같은 맥락/의미를 같은 기호로 표시하기) 의미 없는 명제를 다시 읽어  
가지 말고,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것~~을 바로 찾으려 가세요.

그러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몇 문단, 몇 행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번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습니다.

[연결논리]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48. ㉠ :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보기>

㉠. 언어 : 세계  
 ㉡. 명제 : 사태  
 ㉢. 논리적 그림 : 의미 있는 명제  
 ㉣. 형이상학적 주체 : 경험적 세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선택지 해설>

(같은 맥락/의미를 같은 기호로 표시하기) 정답률 50%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 도구로 훈련해왔다면, 정말 쉽습니다.

언어 : 세계  
 명제 : 사태  
 논리적 그림 : 의미 있는 명제

정답 ㉠, ㉡이네. ㉢ 틀렸네 개쉽네...

④번에 오답률이 20%가 넘는 것으로 보아서, ㉢을 적절히 고쳐보는 것  
이 핵심입니다. 그냥 ~~고~~ 갖고 오면 되죠? 의미 있는 명제가 왜  
여기 나오니까...

㉢. 논리적 그림 : 논리적 가능성

단순히 '몇 문단 몇 행' 이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의미 있는 명제'는 명제의 부분 집합입니다.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참,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명제)  
그러므로, ㉢에서 '의미 있는 명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2PRINCIPLES

[46~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수능)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9.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의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같은 맥락/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하라)  
 <보기> 내용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 이렇게 치환이 안 된 사람은, ‘정말 많이 잘못 공부 하고 있는 겁니다.’

는 의미 없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이 왜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하는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문에서 을 찾아 주거나 의 내용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번의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는 을 뒤집은 것이니,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속달되면 1초만에 됩니다.)

지금 4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몇 문단의 몇행에 근거가 있다 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같은 맥락/의미 -> 같은 기호로 표시하라) 독해기술을 써 왔다면, ㉠번 선택지의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가 로 보였을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론해봅시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의 3행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이 책의 내용인,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매력적인 오답>  
 ㉢번에 20% 넘는 오답이 있으니, 반드시 왜 틀렸는지 연결논리를 명확히 세워 보아야 합니다.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

## 2PRINCIPLES

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의미없는 말'에 대한 근거로서 적절하나, 뒤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사태'와 같은 말입니다.

'사태'를 기술하기 때문에 '의미없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허접'하죠? 근데 오답률이 무려 20%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 뭐지??? 지문을 '다시' 들어가는 순간 수험생활도 '다시' 시작해야하는 .....